



신행수기

진실한 믿음 <상>

지영숙 (서울 강동구 천호동)

시집 온 뒤 네 자식 키우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친정 어머니 따라 익힌 절집이 50년이 넘었다. 어릴적 어머니의 지극한 신심을 회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어머니는 매달 초하룻날은 비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종로에서 삼각산 어느 절까지 씬을 머리에 이고 단 한번도 땅에 내리놓지 않고 부처님 전에 다녔았기 때문이다. 그러시던 어머니가 "오늘 부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간다"는 말씀 남기고 극락왕생하셨다. 그 후 나는 자식을 훌륭히 성장하고 복된 집안 이루어 달라고 기원하며 명산대찰 찾아 수없이 불공을 드렸다. 사실 불교에 대한 상식도 없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만 굳게 믿고 부처님 관세음보살 부르고 불공드리는 일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림 · 김홍인

걸음도 못 걷는 몸으로 매일 3번씩 108배...

그러던 내가 불교에 대해 진실한 신심을 일으킨 것은 어떤 계기를 맞이하면서부터였다. 20여 년 전에 육체적으로 큰 병이 없으면서도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활동하는 데도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심하게 아플 때마다 꿈속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스님이 나타나시어 "염려말라" 하시는 것이었다.

이처럼 의문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신심이 떨어지자 다시 몸이 아파 오기 시작하여 거동까지 불편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우연히 몇 번 씬 스님의 소개로 부산 범어사 한 암자의 스님을 찾아 볼게 되었다. 산길을 올라 갔는데 다른 사람이면 20분 정도 걸릴 곳을 한 시간이나 걸려 올라갈 정도로 나의 몸은 쇠약해 있었다. 스님께 먼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아플 때마다 스님이 세 번이나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불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럴 수가 있는 나고 물었다. 그 스님의 모습은 차갑고 엄하게 보였는데 왠지 질문을 잘 받아주실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물었던 것이다.

스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분이 아마 관세음보살님이실 것입니다. 열심히 염불하지 않아도 꿈에 불보살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선군이 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혈통의 문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집안이 대대로 불심이 깊은 경우 말입니다"라 하시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보살님이 선군이 깊으니 자식들도 모두 선군이 이어져 다 훌륭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라 하셨다. 나는 선군의 뿌리가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스님의 말씀에 어릴 적 친정 어머니 생각이 떠올라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다시 믿음을 일으켜 예전처럼 열심히 염불하리라 다짐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의문을 푸는 가운데 낯선 곳을 찾아다니면서 가졌던 불안감이 사라졌다.

그날 저녁 예불시간 전에 스님이 나를 불러 "오늘부터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하셨다. 나는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예, 따라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스님께서 매일의 일과표를 주셨다.

새벽예불 사시불공 저녁예불에 하루 세 번 참석하되 108번씩 절을 하라 하셨다. 걸음도 제대로 걸지 못하는 몸으로 어떻게 절을 108번이나 할까 생각하니 아찔했지만 한 번 대답한 일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스님은 절을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 하고, 일어날 때도 바닥을 잡고 일어나서 하면서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하리라 마음 먹고 그 날 저녁 예불시간부터 일과를 시작했다. 병이 낫고 자식들에게 선군이 이어진다

는데 무엇을 마다하겠느냐 라는 나의 신념 때문이었다. 누군가가 욕망을 버리고 기도 하라고 했지만, 나의 그런 바람들은 진실로 순간 순간의 간절한 염원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불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절을 해본 적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은 여행의 피로와 더불어 절을 많이 한 탓에 어떻게 잠을 잤는지도 몰랐고, 새벽예불 묵묵소리에 놀라 자잠 잤다.

새벽예불을 마쳤더니 걸음을 제대로 올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른 아침 졸음이 몰려오고 있을 때 아침 공양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고통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몸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를 수 없다는 것과 108번의 숫자를 세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다. 자식들과 병의 쾌유를 위해 기원해 도 랜잡느냐고 물었다.

스님은 웃으며 가만히 보시다가 말씀하셨다. "그러면 명호는 부르지 말고 스님의 염불 음성을 뚜렷이 들기만 하세요, 절은 한 번 대답한 일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스님은 절을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 하고, 일어날 때도 바닥을 잡고 일어나서 하면서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스님께서 내 마음을 뚫어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다.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 의문들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정진했다.(계속)

킬레이 수행일기 <하>



윤승기 선덕여중 교사

화두를 쟁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던 중 갑자기 누가 나의 어깨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편안함이 찾아왔다. 눈앞의 캄캄한 어둠속에 푸른색의 점이 하얗게 점차 밝은 빛으로 변하면서 소용돌이치며 빠른 속도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두려웠다. 그러나 두려움은 잠시, 편안한 그 기쁨을 무엇이라 표현할까? 그 속에서도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포듯한 '살아 있음'이 있었다.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었다. 좌선이 끝남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쉬움을 남기며 했다. 나는 '이것이 혹시 공(空)의 체험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고, 이런 경험을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끄달리는 편이 아니었고 무엇이든 수고를 해야 바꾸지 않으면 생각하는 성격이었다. 어떠한 일에 부딪치면 '그렇구나!' 하면서 생각을 멈추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는 모든 일을 그냥 흘러

받고 힘을 얻지만, 많은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틀에 박힌 모습으로 정형화 시켜서 나도 경직되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또 다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모든 것이 이렇게 상호작용 하면서 서로 연결됨을 느꼈다. 나의 내면이 달라짐에 따라 점차로 여유가 생기게 되니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줄어들었다.

'혹시 이것이 공의 체험일까?' 의문 차별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내면은 행복하지 않았다. 만약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흘러 보냈다면 기쁨에 넘치고 행복하고 편안했을 텐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이었다. 1999년 큰 아이가 고3, 작은 아이가 고2에 재학 중이었는데 두 아이가 다 당시 유행하는 리니지 컴퓨터게임에 빠져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제재는 다 동원하였지만 아이들에게 나의 통제는 먹히지 않았다. 화는 불같이 타오르고, 생각을 돌리고 또 돌리고...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한 후 2000년 7월쯤 대화하다가 "엄마, 그동안 제가 절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앞으로 잘 할게요."

그말에 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 아이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지금의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고, 나는 그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기쁨과 충만감을 느낀다.

나는 내게 다가오는 것을 좋고 싫을 없이, 두려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교직이라는 직업이 아이들의 순수하고 활기찬 모습에서 감동을

또한 아이들이 큰 볼품기로 물고 가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고나 할까.

2001년부터 불교 관련 책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고 2003년 4월 우연한 기회로 현승 스님의 책 <문지 않는 질문> (민족사)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 평소 생각인 "나 자신에게 정직하자", "자각하라"는 것에 공감하였고 평소 애공하였던 것이 해결되었다. 그리고 직접 만나 보았다. 나의 좌선 중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단락을 아니라고 하셨다. 미국에 계시면서 메일로 법문을 전해 주셨고 그리곤 나의 긴 방향이 끝나 버렸다. 스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사의 3배를 드렸다. 점차 생각이 정돈되어 갔고 내가 알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너머에 진리가 있음을 안다. 스님께선 "찾는 자를 보아라", "의지 할 것도 없다", "세 날을 맞이하라" 하시며, 나는 오늘도 기회중 육조사에서 현장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법을 만난다.

지나간 모든 일들(사람, 사건)이 나의 스승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뿐이다.(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더 빠르!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문의: TEL 02)732-1522, 02)737-8881, FAX 02)737-0697. 가격: 1Box(4.4x4.4) 4만원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처님, 서예용, 일반용.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055-882-3455, 016-428-6665

범패, 염불, 학인모집중. 천도재 점안식. 02)939-3327, 011-9923-3329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중. 02)3391-8523, 011-9002-8523

전통범패의식. 천도재, 수륙재, 산신재, 점안식, 바라춤, 나비춤. 051)468-7374, 018-523-7374

레이키(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기적.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02)720-5719, 720-5682

명당. 팔자권행사 월간역의. 02)2264-0258, www.kbs.cc

제2기역학수강생모집. 과목: 사주, 관상, 수상. 02-2264-0258

암 디스크관절, 당뇨, 백혈병, 합병증, 근육병, 정신질환 등. 031)671-1878

소백산 송이, 능이 판매. 054)634-3334, 751081-51-060579

불자 실버하우스. 사찰 경내 신축건물. 031)867-1801~2, 016)703-6648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풍부해지며 영산재법과 우리말이아. 016)9414-1525

지리산자연송이 판매합니다. 055)883-2106, 016-777-7656

모 집. 기도스님 1명, 처사 1명, 공양주 1명, 법당 화주보살 1명. 054)383-8032, 011-9176-4403

1. 일본의 사찰에 기도하면서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실 노부부를 모집합니다. 001-81-257-22-5488

기도 비구니스님 모집합니다. 전남. 061)462-1242, 011-9400-5254

행자모심. 만40세미만으로 고졸이상 대학 대학원 진학 책임지원. 02)917-3363

수행 비구니스님 및 행자(여) 모집합니다. 010-8678-2444, 018-801-2588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집합니다. 054)636-0229

神典건축. 사찰, 암자, 사당, 명상, 요가센터, 다도방, 황토방. 031)771-9321